파킹통장 '유동성', 단기적금 '수익', 정책금융 '목돈 마련'

청년 금융자산 분할 전략

저금리 기조, 예·적금 금리 역전
목적별 분산으로 유연한 설계
파킹통장·청년도약계좌 주목
26주·6개월 등 단기적금 인기

2025년 입대자의 경우, 18개월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완납하면 약 2021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통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국군 장병들. /뉴시스

최근 청년 세대의 금융자산 '분배 전략'이 화두다. 청년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지만 각종 금융 상품의 금리는 하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청년 세대는 자산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단일 상품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다수 상품에 자산을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8일 은행연합회 고시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2.34~3.1%(1년) 수준이다. 해당 상품들의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2.61~3.15%였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적금과의 이자 역전까지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목돈을 단번에 맡기는 정기예금이 금액을 나눠 내는 적금보다 이자액이 많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연 2~3%까지 낮아지면서, 최고 연 5~6%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보다 이자액이 줄었다.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대 미혼 청년의 평균 금융자산은 3625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 2642만원에서 1003만원(38%)이나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약 2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만큼, 금융 상품 선택은 더 중요해졌다.

◆ 유동성 중요… '파킹통장' 최우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산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예금)을 우선 개설하는 것이 좋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연 2~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금액에 한도가 있고, 향후 금리가 변동할 수 있어 급여 통장이나 대기 자금 예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은행은 최대 200만원의 예금액에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월한 월급 통장'을 특판하고 있다. 기본 금리 연 0.1%에 더해 해당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시 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간 우리은행 거래가 없었을 경우 1%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금액에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BNK 파킹통장'을 판매 중이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액에는 연 2.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예금액에는 2.0%의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 마케팅 정보활용 동의시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0%다.

농협은행은 만 19~34세 청년 전용 상품인 'NH1934우대통장'를 공급한다. 기본 금리는 연 0.1%지만, 당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거래, 당행 급여 입금, 자동 이체 등록 등 주거래 조건 충족 시 2.9%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금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 '정부표' 정책금융상품, 높은 금리

자산규모가 안정적이거나 향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각각 5년과 10년으로 길지만, 은행권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에 더해 정부가 소득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권 적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에 육박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다. 금리가 연 4.5%로 통상 2% 수준인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 달한다.

◆ 투자대기자금 있다면… '단기적금'도

은행 예·적금 이외에 주식·펀드·가상자산 등에 투자가 잦다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이 주로 공급하는 '초단기적금'도 고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26주간 매주 금액을 늘려 납입하면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26주적금'을 판매한다. 최초 가입 시 1000원~1만원 사이에서 금액 설정이 가능하며, 매주 납입 시 약정금액 만큼 납입액이 늘어난다.

토스뱅크는 6개월 동안 매주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만기 시 최고 3.8%의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도중에 유동성이 필요해질 경우 납입액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1개월 가입 시에도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코드K 자유적금'을 판매한다. 납입액 한도는 30만원이지만, 1인당 15개까지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연내 印尼서 QR코드로 결제·인출 가능해진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소액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구축
금융사·핀테크사 활용 확대 기대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6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은행 출입기자단과 만나 소액지급결제서비스의 국가간 연계를 위한 허브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 2027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디티야(Aditya·가명) 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외국에서 결제할 때에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QR코드를 인증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가능한 것을 넘어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결제 사업자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국제브랜드(VISA, MASTER 등) 카드사 인프라를 이용하며 냈던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뒤 동행기자단과 만나 "각국의 다양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대표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비자(VISA)·마스터(MASTER) 등 국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를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와도 QR코드로 결제하고,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결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박 원장은 "우리 여행객이 인도네시아에 나갔을 때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고, 외국 ATM기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하면 외국에서 결제할 때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국제 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제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거래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좁게는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 넓게는 고객과 해외 가맹점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지급결제기관 아스피(ASP)가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 기자 yul115@

'대선정국' 세종 집값 강세… 두 달새 1억 껑충

정치권 수도 이전 발언 촉매제
매매가 전주 대비 0.49% 상승

"세종은 요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전화 오는 빈도부터 다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데다 실거래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2단지(세종리더스포레)' 전용 99㎡는 4월 13억4000만원(24층)에 거래됐다. 전달 동일 면적 실거래가(35층, 13억2500만원)보다 15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59㎡도 같은 달 4층에서 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2월 11층(5억8000만원)보다 7000만원 상승했다. 두 사례 모두 더 낮은 층에서 거래됐지만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됐다.

정치권의 수도 이전 발언이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공개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이 모두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7일 국회 대토론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청와대 및 헌법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형성된 기대감은 통계 지표에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9% 상승했다. 전국 평균(-0.02%)은 물론 서울(0.09%)보다도 높은 수치로 세종은 4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당발 경기변동에 따라 반등 기대감이 있는 수요와 전세 안정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새롬동 새뜸마을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3년 전엔 12억원까지 갔던 더샵힐스테이트 국평(전용 84㎡)은 8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억원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라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보류하는 사례도 많고 매수 문의도 활발하다"고 했다.

나성동 나릿재마을에서 중개업을 하는 B씨는 "리더스포레의 경우 국평 물량은 두 달 새 약 1억원 가까이 오르며 12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며 "최근엔 호가가 13억 후반에서 14억원까지도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성동은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상권이 발달했고 대전·청주 등과 연결되는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며 "세종예술의전당과 국립민속박물관(2031년 예정)이 포함된 국립박물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나성동과 새롬동 일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반면 중촌동 등 일부 지역은 단기 급등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지원 기자 jjw13@